

예술조형에 따른 여성 구두디자인의 현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영 재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섬유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The Study of the Modern Character of Women's Shoes Design According to the Formative Arts

Lee, Young-Jae

Associate Professor, Dept. Textile & Fashion Design, Design College of Graduated,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some methods to provide women's shoes and their design images from the 1920s to the 1940s, and to benefit from the new methods for creative design and new materials in the future. It also examined the features with the academic background of women's shoes. To target on analysis items and shoes design factors, moreover, it made reference to the paper by former research.

As a result, 28 shoes (30.04%) in the 1920s, 47 shoes(51.09%) in the 1930s, and 17 shoes (18.47%) in the 1940s have been collected. The strap shoes, combination color, bright texture, and buckle trimmings are first on the list.

The most popular shoes were pumps and strap, in terms of design and shape. In particular, black was one of the common and popular colors. Most of the shoes had buckles. Texture also was brilliant. This study was meaningful to provide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about a variety of women's shoes designs from the 1920s to the 1930s.

Key Words : 구두디자인(shoes design), 현대 조형 예술(the formative arts of modern),
형태 분류(shape classification), 재질감(texture), 장식(decoration)

⁺ 본 연구는 2007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 시대의 예술 조형은 인간 생활의 미적 특징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인간의 삶과 공존하는 환경속에서 크게는 건축에서부터 작게는 구두에 이르기까지 조형적 특성이 하나의 커다란 양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구두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변천, 발달되어왔다. 복식의 미적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면서 구두디자인 또한 새롭게 창조되어 한 시대를 이끌어 가면서 또 하나의 다른 조형미를 창출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

복식이 인체를 확장하거나 변형하여 변화를 추구 하듯 구두 또한 굽, 소재, 장식, 색상 등을 통해 인체와 상호 작용할 뿐만 아니라 복식의 코디네이트에 있어서도 새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

20세기에 와서 안드레 페루지아(Andre Perugia)와 엘사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폴 푸아레(Paul Poiret)의 초현실주의 구두, 페레가모(Salvatore Ferragamo)의 독특한 플랫폼 구두, 로제 비비에(Roger Vivier)의 뉴욕을 위한 매혹적인 구두, 마놀로 블라닉(Manolo Blahnik)의 우아한 펌프스와 샌들은 구두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어 구두디자인을 통한 창조의 자율성을 열어 주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구두디자인의 새로운 시대는 구두 분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폭시켰다.

국내 선행연구는 7편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자는 장선애¹⁾, 구인숙²⁾, 김선화³⁾, 최유화⁴⁾, 김현희⁵⁾, 차은진⁶⁾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들은 구두의 역사적 고찰 또는 패션 이미지와의 연관에 관해 서술한 것이지만 본 연구는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의 시대 별 예술조형이 여성 구두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끼친 영향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예술조형에 따른 여성 구두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구두에 창조적인 디자인과 새로운 형태와 소재 개발에 중요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구두의 사전적 정의는 서양식 신발(洋靴)이다. 영어로는 슈즈(shoes)로 샌들(sandal)과 부츠(boots)가 포함된 서양식 신발을 지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구두로 샌들과 부츠가 포함된 서양식 여성신발이 된다.

본 연구는 종적고찰과 횡적 고찰을 병행하였다. 종적 고찰은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예술조형사와 구두디자인으로 범위를 정하였고, 횡적고찰은 각 시기별 예술사와 구두디자인의 연관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적인 통계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구두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에 사용될 구두를 형태별로 분류하였다. 내용분석으로는 구두의 디자인 요소를 형태, 색상, 재질감(texture), 장식으로 분류하여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구두의 조형적 이미지 특징을 살펴보았다. 모두 107점의 구두 사진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 분류기준에 준하여 분석이 애매모호한 15점을 제외한 92점을 분석하였다.

II. 현대 예술조형과 구두의 조형적 특성

1. 아르누보 양식과 아르데코 양식의 공존

아르누보(Art Nouveau)는 1890년경에 등장하여 20세기 초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성행한 조형예술의 지배적인 과잉양식이다.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아르데코(Les Art Deco)는 1920년경을 전후하여 1930년대에 걸쳐 나타난 미술양식이다. 전자는 곡선을 C자, S자의 식물 넝쿨 형태로 표현하였고 부드럽으면서 우아한 색조를 주로 사용하였다. 후자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단순성과 기능주의를 추구하였다. 아르데코의 색상은 검은색, 금속소재색, 원색, 파스텔 색조 등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아르데코 패션의 스타일은 폴 푸아레 풍의 엠파이어 스타일과 가르손느 스타일이다. 폴 푸아레는 향수, 구두, 액세서리 등을 디자인하여 판매함으로써 토털패션을 추

구하였다⁷⁾.

그러나 패션이나 예술조형에 나타나는 사조들은 정확히 시대를 구분 짓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1920년대에 대입하여 설명할 수 있다. 특히 1920년대에는 아르누보 양식과 아르데코 양식이 공존 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르누보 양식에서 아르데코 양식으로 변화의 예는 <fig 1>에서 <fig 4>까지다. <fig 1>은 1921년 Hellstern & Sons의 제품으로 붉은색 벨벳(velvet) 천위에 작은 크리스탈 문양이 아르누보 양식을 따랐음을 말해주고 있다. <fig 2>는 구두디자인의 장인(master of design)이라 불리는 안드레 페루지아(Andre Perugia)⁸⁾의 작품으로 연분홍색 스웨드(suede) 천위에 은색 소재 문양을 아플리케 하였다. 문양은 아르누보 양식의 식물 넝쿨문양이 단순화된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기하학적인 요소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 즉, 아르누보에서 아르데코로 가는 과도기적 성향이 보여진다. <fig 3>의 빨강 원색과 문양이 아르데코 양식에 가까워 <fig 2>에 비해 아르데코 성향이 농후하고 할 수 있

다. 빨강(crimson red) 벨벳과 금색 장식(gold calf)<fig 4>는 보다 날렵한 형태와 양식화되어 기하학 형태로 보이는 꽃장식이 아르데코 양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구두 또는 의상 디자이너들은 스포츠 활동의 자유에 초점을 둔 신발을 디자인하였음을 광고 <fig 5>⁹⁾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후에 되찾은 자유를 반영하고 활동적인 여성상이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합성 직물의 대량생산과 제화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구두를 쉽게 접하게 되어 구두가 패션의 한 부분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뾰족한 토와 얇은 띠를 발등에 단 형태의 스트랩 펌프스(strap pumps)<fig 4>는 당시에 인기 있는 스타일 이었고 공단과 벨벳 등의 화려한 소재<fig 3>는 다시 각광을 받았었다.

2. 아르데코 양식의 정착과 초현실주의의 도입

1930년대 구두디자인을 예술 조형적 측면에서 살



<fig. 1> 펌프스, 헬스턴 앤 선, 1921, -SHOES, p.178



<fig. 2> 샌들, 안드레 페루지아, 1920s, -SHOES, p.46



<fig. 3> 스트랩, 아이 밀러, 1920s, -SHOES, p.94



<fig. 4> 스트랩



<fig. 5> 1920년대 신발광고, A 20c Shoes



<fig. 6> 펌프스, 페루지아, 1931, -SHOES, p.492



<fig. 7> 샌들(cubist sandal), 페루지아, 1930,-SHOES, p.46

해보면 아르데코 양식이 완전히 정착되었고 초현실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초현실주의 (surréalisme)는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위적(前衛的) 문예운동이다. 기괴한 주제나 꿈, 환영(幻影), 무의식의 시각 등을 이용하여 낯익은 사물들을 비논리적 관계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표현의 혁신을 일으켰다. 화가 달리는 꿈이나 편집광적(偏執狂的) 환각 등을 회화화(繪畵化)한 편집광적 비판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초현

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평가받게 되었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제각기 꿈이나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고유한 자아 탐구 수단을 모색하였다.

초현실주의가 예술품으로 표현되면서 주된 접근 방법은 구두 형태가 머리위로 올라가 모자가 되는 '의외성' 이었다. <fig 6>은 물고기 형태를 구두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자연물이나 사물을 직설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의 의외성이다. <fig 7>은 입체파 샌들로 형태를 새롭게 분석하여 미래적이며 입체적인 조형미가 돋보인다. <fig 8>은 신고 보행이 불편한 정도의 상식을 초월한 뒤굽의 올림으로 의외성을 추구하였다. <fig9>는 스티븐 알파드(Steven Arpad)의 작품으로 에펠탑의 밑부분을 그대로 잘라 구두 굽으로 사용한 듯 한 의외성을 보여준다. <fig 10>과 <fig 11>은 아르누보와 아르데코로 분류 할 수 있는 앵글부츠다. <fig 10>의 식물 넝쿨 문양은 엠보싱(embossing) 테크닉을 도입한 것으로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fig. 8>펌프스, 페루지아, 1937, -SHOES, p.460



<fig. 9>펌프스, 스티븐 알파드, 1939, -SHOES, p.369



<fig. 10>부츠, 알파드, 1930s, -SHOES, p.488



<fig. 11>부츠, 페라가모, 1930s, -SHOES, p.433



<fig. 12>플랫폼, 페라가모, 1938, -SHOES, p.355



<fig.13>플랫폼, 페라가모, 1939, -SHOES, p.3



<fig. 14> 1930년대 샌들, A 20c Shoes

이에 비해 <fig 11>은 단순화된 형태로 아르데코적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의 구두 디자이너들은 구두 패션 디자인에 대하여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페레가모는 목재, 코르크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플랫폼(platform) 슈즈를 선보였다. <fig 12>의 윗부분은 금색 새끼염소 가죽이며 여러 층의 코르크로 된 플랫폼 창이 다양한 밝은 색상의 스웨이드로 싸여 있다. 이처럼 발등이 뚱뚱하게 보일 정도로 댐프(vamp)가 길었으며 토 부분에 오픈되어 있는 샌들(sandal)류가 매우 인기가 있었다. <fig 13>도 같은 페라가모의 디자인이다.

끈이 달린 굽이 높은 샌들은 이브닝 드레스와 함께 신었으며 드레스 색상과 어울리는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기도 했다. 슬링백(sling-back, 발꿈치 부분이 끈으로 된 구두)이 유행했으며, 앞이 트인 디자인도 1931년 처음 소개되었다. 프랑스의 신발 디자이너 로제 비비에(Roger Vivier)는 1930년대 중반 플랫폼 창을 최초로 개발했으며 1936년에는 살바도레 페라가모가 최초의 웨지 창을 만들었다¹⁰⁾.

남성들은 실용적이고 편안한 로퍼(Roffer) 스타일의 구두와 목이 낮은 부츠를 신었고, 여성은 감각적인 개성을 찾으며 새로운 디자인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3. 대중화 확산

<fig 15>는 나무로 된 웨지(wedge)굽 으로 된 스트랩이다. 이는 디자이너 윌립피노가 2차 세계대전

후 필리핀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 한다. 이는 1945년까지 초현실주의 구두가 있었던 것으로 열대 지방의 풍경과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구두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이다. 1940년대는 전쟁으로 인하여 물자가 부족하게 되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파충류 등의 가죽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구두의 소재 <fig 17>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구두의 많은 부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재를 생산하던 공장에서는 군수 물자를 생산하면서 구두 굽의 높이, 스타킹 색깔 등 여러 요소를 통제 받았고, 전쟁 이후 1947년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새로운 모양, 가는 허리와 더불어 고전적인 여성스러움과 폭넓은 스커트를 선보였다. 이에 따라 구두도 여성스런 곡선을 살린 펌프스와 스트랩이 유행하였다¹¹⁾.



<fig. 15>웨지 샌들, 윌립피노, 1945, -SHOES, p.366



<fig.16>웨지 샌들, 페라가모, 1947, -SHOES, p.62



FERRAGAMO invented the wedge heel in 1936, then used it on shoe styles from sandals to pumps and ankle boots over the next decade.

SALVATORE FERRAGAMO, 1940s

<fig. 17>웨지 샌들, 페라가모, 1940s, -SHOES, p.59



<fig. 18>1940년대, 파충류 등의 다양한 가죽 소재, A 20c Shoes

III. 구두디자인의 조형적 이미지 특성

1. 분석방법과 내용

<Table 1> 형태별 분류기준 사진

Fig No.	분류기준 사진	형 태
<fig 9>		펌프스
<fig 10>		스트랩
<fig 11>		샌들
<fig 12>		부츠
<fig 13>		옥스퍼드
<fig 14>		캔버스
<fig 15>		플랫폼

아르누보, 아르데코, 초현실주의 예술조형과 사조가 트렌드였던 1920년대부터 1940년대 구두디자인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항목인 구두의 디자인요소를 차은진¹²⁾의 1990년대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과 패션 이미지 연구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형태 7개 항목, 색상 8개 항목, 재질감 8개 항목, 장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두의 디자인 요소 파악의 객관성을 위하여 섬유패션디자인 전공자 5명을 중심으로 분석자간 일치도를 보이는 사진을 선정하였다. 구두디자인요소 분석을 위해 1920년대부터 1940년까지의 구두 이미지를 연도별로 분류 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92개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 중 1920년대의 구두는 28개(30.04%), 1930년대는 47개(51.09%), 1940년대에는 17개(18.47%)가 수집되었다.

구두디자인의 요소별 분류 기준을 <Table 1>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1920~1940년까지 나타난 구두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형태별, 색상, 재질감, 장식순으로 출현 빈도수와 백분율로 알아보았다.

<Table 2> 색상별 분류기준 사진

Fig No.	분류기준 사진	색 채
<fig 16>		레드 계열
<fig 17>		골드/실버
<fig 18>		배색
<fig 19>		문양색

<Table 3> 장식별 분류기준 사진

Fig No.	분류기준 사진	장식
<fig 20>		끈
<fig 21>		버클
<fig 22>		리본

<Table 4> 재질감별 분류기준 사진

Fig No.	분류기준 사진	텍스처
<fig 23>		화려한, 찬란한 (bright)
<fig 24>		비단같은, 매끄러운 (silky)
<fig 25>		거칠거칠, 가공되지 않은 (rough)
<fig 26>		힘이 있어 뽀뽀한 (crisp)
<fig 27>		부드러운 (soft)
<fig 28>		비치는 (see-through)
<fig 29>		금속의 (metallic)
<fig 30>		딱딱, 스포티한 (stiff)

1) 형태

<Table 5> 연도별 구두형태 출현빈도

	1920	1930	1940	총계 (%)
펌프스	7 (25)	14 (29.78)	2 (11.76)	23 (25)
스트랩	12 (42.85)	9 (19.14)	4 (23.53)	25 (27.17)
샌들	2 (7.14)	12 (25.53)	3 (17.64)	17 (18.47)
부츠	5 (17.85)	5 (10.63)	0 (0)	10 (10.86)
옥스퍼드	1 (3.5)	1 (2.27)	0 (0)	2 (2.17)
캔버스	1 (3.5)	0 (0)	0 (0)	1 (1.08)
플랫폼	0 (0)	6 (12.76)	8 (47.05)	14 (15.21)
총계 (%)	28 (30.04)	47 (51.09)	17 (18.47)	92 (100)

1920년대에는 12개(42.85%)개로 스트랩(strap) 형태의 구두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7개(25%)인 펌프스(pumps)이다. 1930년대에는 1920년대에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던 펌프스가 14개(29.7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샌들(sandal)은 12(25.53%)개로 그 뒤를 이어 나타났다. 그러므로 당시 여성들은 대부분 펌프스, 스트랩, 샌들을 주로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0년대에는 플랫폼(platform) 슈즈가 8개(47.05%)로 가장 많이 나타나 구두 착용 아이템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석된다..

1920~1940년대 까지 구두 형태 출현빈도수를 살펴보면 25(27.17%)개의 스트랩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23(25%)개로 펌프스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샌들이 17(18.47%)개로, 플랫폼슈즈 14(15.21%)개, 옥스퍼드, 캔버스는 순 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앞서 밝힌대로 본 연구자가 수집한 사진자료로 제한 된 것이기에 1920년~1940년대 구두 전체에 대한 결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구두 형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유용한 결과라 사료된다.

2) 색상

<Table 6> 연도별 구두색상 출현빈도

	1920	1930	1940	총계(%)
Black	6 (21.42)	7 (14.89)	1 (5.88)	14 (15.21)
Brown	5 (17.85)	4 (8.51)	0 (0)	9 (9.78)
White/ Black	2 (7.14)	7 (14.89)	0 (0)	9 (9.78)
Red	4 (14.28)	7 (14.89)	1 (5.88)	12 (13.04)
Gold/ Silver	1 (3.57)	7 (14.89)	5 (29.41)	13 (14.13)
배색	7 (25)	10 (21.27)	7 (41.17)	24 (26.08)
문양색	2 (7.14)	4 (8.51)	2 (11.76)	8 (8.69)
기타	1 (3.57)	1 (2.12)	1 (5.88)	3 (3.26)
총계 (%)	28 (30.04)	47 (51.09)	17 (18.47)	92 (100)

1920년대 구두의 색상은 배색이 7개(2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은 6개(21.42%)인 블랙이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는 배색이 10개(21.2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블랙, 화이트, 베이지, 골드/실버, 레드 계열의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1940년대에도 배색이 7개(41.1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골드/실버가 나타났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전반적인 칼라는 배색 24개(26.0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14개(15.21%)로 블랙이 나타났다.

3) 재질감

<Table 7> 연도별 구두재질감 출현빈도

	1920	1930	1940	총계(%)
bright	16 (57.14)	13 (27.65)	1 (5.88)	30 (32.60)
silky	4 (14.28)	5 (10.63)	1 (5.88)	10 (10.86)
rough	1 (3.57)	9 (19.14)	0 (0)	10 (10.86)
crisp	0 (0)	3 (6.38)	2 (11.76)	5 (5.43)
soft	1 (3.57)	4 (8.51)	2 (11.76)	7 (7.60)
see- through	0 (0)	0 (0)	3 (17.64)	3 (3.26)
metallic	0 (0)	6 (12.76)	2 (11.76)	8 (8.69)
stiff	6 (21.42)	7 (14.89)	6 (35.29)	19 (20.65)
총계 (%)	28 (30.04)	47 (51.09)	17 (18.47)	92 (100)

1920년대의 재질감은 화려한(bright) 재질감이 16개(57.1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1930년대도 화려한 재질감이 13개(27.65%)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은 9개(19.14%)로 거친(rough) 재질감이 나타났다. 1940년대에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적은 빈도수를 보였던 딱딱한 재질감이 6개(35.2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볼 수 없던 비쳐 보이는(see-through) 재질감이 3개(17.6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시기 전체적인 재질감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화려한 재질감이 30개(32.60%)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딱딱한 재질감이 19개(20.65%)로 나타나고, 비단같은(silky) 거친 재질감이 각각 10개(10.8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4) 장식

<Table 8> 연도별 구두장식 출현빈도

	1920	1930	1940	총계 (%)
끈	4 (14.28)	7 (14.89)	1 (5.88)	12 (13.04)
버클	12 (42.85)	18 (38.29)	10 (58.82)	40 (43.47)
리본	6 (21.42)	5 (10.63)	1 (5.88)	12 (13.04)
기타	4 (14.28)	5 (10.63)	2 (11.76)	11 (11.95)
무장식	2 (7.14)	11 (23.40)	3 (17.64)	16 (17.39)
총계 (%)	28 (30.04)	47 (51.09)	17 (18.47)	92 (100)

1920년대의 구두 장식은 12개(42.85%)로 버클이 가장 많았으며 6개(21.42%)로 리본이 그 다음 순이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도 18개 (38.29%)로 버클 장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장식이 없는 무장식이 23.40%로 그 다음이었다. 1940년대도 1920년대와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버클이 10개 (58.8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시기 구두 장식의 출현 빈도수는 40개 (43.47%)로 버클 장식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순으로는 무장식 16개(17.39%), 끈과 리본이 12개(10.0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래 <Table 9>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여성 구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술사조와 조형적 특징을 요약하여 표로 만든 것이다.

이상에서 1920년대 여성구두는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스타일이 공존하였으며 근대적인 디자인요소가 스트랩 형태와 화려한 재질감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색과 버클은 현대적인요소가 도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30년대에는 아르누보는 퇴색하기 시작했고 아르데코 스타일이 확실히

히 정립된 시기이다. 실험적인 초현실주의 디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형태는 펌프스로 이전시대와는 달리 현대적인 요소가 수위를 차지했고 다른 부분에서는 전시대와 동일하다. 1940년대는 2차 세계 대전이 있었던 시기로 플랫폼의 등장이 눈에 띄나 무대의상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재질감이 딱딱한 것이 많아 실용적이고 단순한 아르데코 스타일이 대중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 여성구두의 예술사조와 조형적 특징

		1920	1930	1940	
예술사조		아르누보 아르데코	아르누보 아르데코 초현실주의	아르데코 초현실주의	
	조형적	형태	스트랩	펌프스	플랫폼
특징		색상	배색	배색	배색
		재질	화려한	화려한	딱딱한
		장식	버클	버클	버클

IV. 결론

본 연구는 현대 구두디자인의 시작이 당시 예술조형과 어떤 연관아래 발전되었는지 조형적 이미지 특성을 연구였다. 이를 통해 미래의 구두에 창조적인 디자인과 새로운 형태와 소재 개발 및 디자인 개발 방향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 목적 이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예술조형사와 구두디자인이었다. 아르누보, 아르데코, 초현실주의가 구두디자인에 나타난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1920년대는 르네상스적 디자인특성과 곡선문양의 도입 등으로 아르누보 양식이 구두디자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192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원색도입, 유선형의 간결한 형태, 양식화되고 단순화된 아르데코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구두디자인에 있어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의 공

존시기임을 밝힐 수 있었다. 1930년대는 새롭고 다양한 구두디자이너들이 등장하였다. 단순화된 아르데코 양식에 가까운 구두디자이너가 대부분이었고 구두 밑창부분을 과장시킨 플랫폼 슈즈와 다양한 샌들류가 등장했다. 초현실주의에 영향받은 의외적이며 기발한 구두디자이너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0년대에 들어서 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구두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이는 1930년대 목재, 코르크로 만들어진 플랫폼 구두부터 시작된 현상이며 현대 패션디자이너의 시작을 알린 비섬유소재의 등장처럼 현대 구두디자이너의 시작을 알리는 현상으로 분석 할 수 있다.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구두디자이너 요소인 형태, 색상, 재질감, 장식별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20~1940년 까지 구두 형태별 빈도수를 보면 스트랩, 펌프스, 샌들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랩, 펌프스, 샌들은 1920년대 이전까지 내려 왔던 르네상스적 클래식한 구두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위의 형태들은 21세기 현재까지 여성구두의 주력 아이템으로 아르데코 장식예술과 함께 구두 형태 디자인이 변화된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즉,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현대 구두디자이너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는 배색과 블랙이 색상에서 수위를 차지한 것보다 깊은 연관이 있다. 색상은 배색, 블랙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서양역사상 블랙이 복식에 도입된 것은 상(喪) 중일 때를 제외하고 아르데코에서 처음으로 부각되었다. 원색의 과감한 배색도 아르데코에 와서 가능한 일이었다.

재질감은 화려한, 딱딱한, 비단같은, 거칠거칠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두디자이너 요소 중 유일하게 재질감은 이전시대의 양식이 많이 잔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 현대적인 딱딱하고 스포티한 스타일이 앞서고 있어 재질감의 세대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장식의 출현 빈도수는 버클 장식, 무장식, 끈, 리본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실용적이며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품인 버클이 1위를 차지한 것은 1920년대 이전의 구두디자이너와는 차별화된 것으로 구두디자이너의 본격적인 현대화를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장선애(1976), “한국근대 여자양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구인숙(1980), “고대 서양신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 자연과학연구소 학술지*. 7(3)
- 3) 김선화(1986), “서양복식에 나타난 신의 역사적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최유화(1991), “서양신발의 유형별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현희(1986), “여성용 구두디자이너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차은진(2004), “1990년대 여성구두의 디자인 특성과 패션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조규화·이희승(2004), *패션미학*, 수학사, p.113.
- 8) Linda O’Keeffe(1996), *A Celebration of Pumps, Sandal, Slippers & More SHOES*, New York: Workman Publishing, pp.46-49.
- 9) Angela, Puttison & Nigel, cawthorne(1994), *A 20 Century of Shoes*, New York: Chartwell Books. INC.
- 10) 벨러리 멘더스·에이미 드 라 헤이(2003), *20세기 패션*, 김정은(역), 시공사, pp. 93-94
- 11) Patricia Baker(1992), *Fashion of a Decade The 1940s*, New York: Facts On File, p. 24.
- 12) 차은진. op. cit., p. 40.

접수일(2009년 4월 8일)

수정일(1차 : 2009년 6월 11일, 2차 : 7월 22일)

게재확정일(2009년 7월 27일)